

공사하다 동굴 발견 빈번... 실태조사 추진

노형·대정 등 서부지역 비지정 천연동굴 56곳 대상
건설사업에 의한 훼손 가능성 커 16년 만에 실시
제2공항 부지 차후에... 도 “예산 추가 확보 예정”

제주도내에 분포하고 있는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가 16년만에 추진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실태조사 용역을 위한 수행 업체 선정 입찰에 돌입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투입 예산은 9992만원이다.

과업 대상은 제주시 서부지역에 위치한 비지정 천연동굴이다. 제주도

내 비지정 천연동굴은 모두 146곳에 이르며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시 도평동, 노형동, 오등동, 한림읍, 한경면, 대정읍, 마라리 등에 위치한 46곳에 대한 천연동굴 조사가 이뤄진다. 또 건설 공사 도중 추가로 발견·신고된 천연동굴 10곳에 대한 조사가 함께 병행돼 실질적으로는 천연동굴 56곳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비지

정 천연동굴의 위치와 규모, 입구 관리 실태 등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하고 동굴의 학술적·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평가는 지난 2003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제주도 천연동굴 일제조사 후 이뤄지는 첫 조사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도내 각종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비지정 천연동굴에 대한 가치와 보존 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훼손이나 멸실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용역을 통해 기초자료가 확보되면 각종 건설공사 추진 시 사전에 개발지역과 연계 검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다만,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부지인 성산읍 등 동부지역에 대한 조사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건설공사 중 동굴이 발견되는 사례가 더 많다”며 “발견 빈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부지역에 대한 비지정 천연동굴 조사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 추진할 것”이라며 “문화재보호법상 사업면적이 3만㎡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매장 문화재 지표 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제2공항 부지내 천연동굴이 추가 발견·신고가 된다면(제주도 용역에서) 현황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가족사랑 태교음악회 개최 5일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

제주시 제주보건소는 제14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태아와 예비부모를 위한 가족사랑 태교음악회를 오는 5일 오후 3시 제주학생문화원 소극장에서 개최한다.

임산부의 날은 풍요와 수확의 달(10월)과 임신기간(10개월)을 뜻하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이날을 기념해 매년 10월 초 가족사랑 태교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음악회는 제주특별자치도립제주예술단에서 ‘10개월의 아름다운 기다림, Bravo My Life(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주제로 모차르트, 슈만 등 클래식 10여곡의 연주를 선보일 예정이다. 부대 행사로는 공연 시작 전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및 제주시 고혈압·당뇨병등록 교육센터와 연계해 임산부 배려 캠페인 및 홍보관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보건소는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제주 오일시장, 동문시장 및 제주지하상가, 보건소 로비 등에서 임산부의 날 기념 주간 캠페인 및 홍보관을 운영한다.

음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임산부가족은 제주보건소(728-4093, 4094, 4027)로 신청하면 된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지난 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년 노인일자리 대축제 기념식에서 제주도, 제주시, 서귀포시, 서귀포시니어클럽, 제주시니어클럽, (주)서귀포시니어클럽말꼬미 등 수상기관 대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 노인일자리 사업 종합평가 ‘대상’

제주시·서귀포시도 수상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년 노인일자리 대축제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선정 2018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평가결과 ‘대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2018년 노인일자리 사업평가는 복지부 주관으로 사업운영 및 성과, 사업특성화, 지자체협력 지원정도까지 전 분야에 걸친 사업관리·운영전반을 분석한 것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제주도는 시·도 종합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의 영예

를 안았다.

아울러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공익활동 및 시장형사업 분야에서 제주시가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서귀포시가 최우수상(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상)을 각각 수상했다.

우수 수행기관 분야 최우수상에는 서귀포시니어클럽이 최우수상을, 우수상에는 제주시니어클럽과 (주)서귀포시니어클럽말꼬미가 이름을 올렸다.

이소진기자

환경정화 곤충 ‘동애등애’ 유기성 폐기물 처리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이 환경정화 곤충인 ‘동애등애’로 음식물, 축산분뇨, 폐사어류 등 유기성 폐기물 처리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산을 활용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개발에 나선다.

제주도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9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4

억2800만원을 투입해 제주환경에 적합한 ‘동애등애’ 사육기술 및 유기성 폐기물 처리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분뇨 등 유기성 폐기물을 활용해 환경정화 곤충인 ‘동애등애’를 대량 사육함으로써 유충 및 번데기는 어류, 가축, 반려동물 등

의 사료로 이용하고 분변토는 유기질 퇴비로 활용하는 등 새로운 농가 소득원 창출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동애등애’는 일반 파리와는 달리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병원균 매개체 역할도 없으며 유충은 음식물 등 유기물 섭취·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필수아미노산 42%의 단백질과 35%의 지방으로 구성돼 있어 애완동물 등 고영양 사료로 이용이 가능하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감굴 1세대 26명의 기억 ‘고스란히’

감굴박물관, 증언조사 완료
60~70년 영농인 이야기 채록
영농일기 등 자료 106점 기증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가 지난 8월 부터 실시한 감굴재배 태동기에 활약했던 감굴 1세대의 기억을 수집하는 구술조사와 자료 수집을 마무리했다.

관광지관리소는 서귀포시 전역에서 1960~70년대 전후 시기에 감굴재배 일선에서 활약한 농업인과 연구자,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 등 26명을 만나 감굴산업 개척에 대한 이야기 채록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문헌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재래농법, 1940년대 감굴 시제, 초창기 감굴관련 조성과정에 있었던 각종 이야기들이 수집됐다. 또 도평동 오봉곡(87) 할아버

지가 1949년부터 지난해까지 68년동안 써 온 감굴영농일기 63권을 비롯해 농업인들이 소장중이던 총 106점의 제주감굴 관련 자료를 감굴박물관에 기증받는 성과를 거뒀다.

증언에 참여한 백자훈 전 제주대농과대 교수는 “당시 제주도민들이 감굴로 성공하고자 했던 열망이 대단했다”며 “1960년대 중앙정부의 제주감굴 진흥정책에 앞서 초창기 일선에서 고생한 지역농업인이야말로 제주감굴산업 발전의 주역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김희훈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장은 “내년에도 감굴 관련 조사연구를 확대 추진, 감굴산업 초창기 농업인들이 떠올린 이야기와 관련 자료들을 박물관에 확대 전시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제주감굴의 우수성을 알리려나가고 문화도시 서귀포시의 위상 제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4·3생존희생자·유족 복지혜택 늘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의 생활 속 복지를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 및 유족증 혜택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 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은 제주출·도착 국내선 항공료 생존희생자 50%, 유족 30% 할인(제주항공), 도내 지정병원에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의료비 감면, 도 직영 박물관·기념관·관광지 관람료 면제, 도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도는 기존 혜택 외에 생활·문화 관

련 복지를 다양하게 누릴 수 있도록 문화관광시설, 영화관, 항공사 등 협의를 통해 관련 혜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희생자증 및 유족증은 9월 기준 총 9886건(희생자 38명, 유족 9848명)이 접수돼 9100명에게 발급됐다. 4·3 희생자증 및 유족증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의 본적지 해당 읍면동(제주도),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청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알림

2019 JDC와 함께 생각을 춤추게하는
NIE공모전

▶공모기간: 2019년 10월 13일(일)

▶공모대상: 도내 초·중·고등학생

▶공모분야: NIE 학습활동 및 스크랩

▶형식: 활동지(크기 자유) 10매 이상

▶시상:

- 개인
 - ▷대상 1명(상금 40만원)
 - ▷금상 4명(각 20만원)
 - ▷은상 4명(각 15만원)
 - ▷동상 11명(각 10만원)
- 단체
 - ▷대상 1팀(상금 40만원)
 - ▷최우수 7팀(각 20만원)
 - ▷우수 5팀(각 15만원)

-지도자 및 지도교사상: 1명
(교육감상 또는 한라일보 대표이사상, 상금 20만원)

※단체상은 일반 및 학교부문 응모 단, 일반 부문은 팀당 3명 제한, 학교는 반 또는 동아리, 부문별 출품작 수와 작품 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팀 부문 이중지원 안됩니다.)

▶접수처: 우편(제주시 서사로 154 한라일보사 4층 편집국 NIE 공모전 담당양) 또는 방문 접수

▶문의: 010-2024-5692

양배추·브로컬리 무우 양파 배추

V패스(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제)

양배추·브로컬리 양파배추 (500㎖당 500배 희석)

- 소독: 정식전 묘종을 적혀 파종(발근제는 필요없음)
- 1차 살포: 파종후 10~15일 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이 불기전 살포
- 효과: 뿌리혹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감자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시들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예방

무우

- 1차 살포: 싹이 10~15cm 되었을때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10월경 찬바람 불기전 살포
- 효과: 무청 바로 밑 검은띠 형성되는 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예방

마늘

- 소독: 파종전 침치 또는 적시어 파종
- 1차 살포: 멀칭전 살충제 혼용살포
- 2차 살포: 2월 말경 해빙기가 되면 살포
- 효과: 잎지 썩음병 등 세균성 바이러스 감염 예방

곰팡이감굴유통상사

부영인 H·P 010-2633-5349

진정한 흙의 보약 “페르카칼슘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한번의 시비로 - 밑비료+추비+농약+병해예방(친환경)
뿌리혹병, 잡초경감, 균핵병, 회색곰팡이병, 흑색썩음균핵병, 역병, 모잘록병, 시들음병, 달팽이사멸, 각따귀, 날파리류, 곰팡이병살균, 방제

페르카의 제반효과 비료대(평) 100-500원

잡초의 경감

N20 오랜 기간 지속되는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민달팽이 및 달팽이 개체수 감소

높은 저장성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방아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뿌리혹병의 경감

사용기준 25K - 1포 (100~500평)사용

취급품목 4종복비, 유기질비료(친환경제품), 1등급가공발효계분퇴비, 유황비료

견주업면 시비용 맥반석, 게르마늄, 황금수, 자옥산

밭, 과수, 골프장, 목초지, 전작물 사용 농경비 30% 절감 + α

연작장애, 토양소독, 석회투입 NO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745-8900, H.P: 010-9258-7508